

KCI 등재 신학 학술지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A Bibliometric Study on the KCI Listed Theological Journals

유 영 준 (Yeong Jun Yoo)**

이 재 윤 (Jae Yun Lee)***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KCI에 등재된 신학 학술지의 주제어와 저자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신학의 공식적인 연구 성과를 밝히는 데 있다. 저자 중복도에 의해서 시기를 둘로 구분하여 92개의 주제어를 McQuitty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였다. 저자 분석에는 저자가 소수의 군집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Ward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술지의 주제어 분석에서는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들의 비중을 함께 분석해서 학술지가 주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었다. 저자 분석에서는 논문의 양을 나타내는 표준성과지수와 성장추세를 표시하는 성장지수를 활용해서 저자들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성장지수 분석에서 주목할만한 학자는 모두 개혁신학자로 나타났다. KCI 학술지의 주요한 주제어 분석과 저자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한국 신학 주제는 조직신학과 신약성경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신학 분야 계량서지학 연구가 KCI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연구는 국내의 공식 인용 색인인 KCI에 등재된 학술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keywords and authors of the KCI listed theological journals and finding the official research performance of Korean theology. This study divided the periods in two according to how duplicate the authors are and found hierarchical clusters by analyzing 92 keywords using the McQuitty method. In analyzing them, the Ward linkage method was selected to prevent the authors from gathering into a small number of clusters. Also, to find how influential the journals were to the keywords, the keywords and the percentage of the journals in them were presented together. The author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ciding the positions of them using normalized performance index representing the number of journals and growth index as a growth tendency. Especially, significant researchers were all reformed theologians in a growth index. In the analysis of the keywords of the KCI journals and the authors, the main subject terms of the Korean theology were related to systematic theology and the New Testament. By analyzing the KCI listed journals as the Korean official citation index, this study has made a difference to the advanced articles analyzing the non-KCI listed theological journals.

키워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신학 학술지, 신학 학술지 주제어, 저자 프로파일링, 계층적 군집분석
KCI, Theological Journals, Keywords of Theological Journals, Author Profiling,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 이 연구는 2020년 나사렛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하였음.

** 나사렛대학교 전자문헌정보학과 교수(youngjune@kornu.ac.kr)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mexlee@mj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8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9월 8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9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3): 5-27,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3.00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국내 신학 학술지를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장로교회 교단 신학교의 학술지와 개혁신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Yoo, Lee, and Choi 2012; 유영준, 이재운 2018). 한국의 종교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따르면 장로교회 교단은 국내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속해 있으며, 가장 많은 교회 수와 교직자 수를 가진 교단이었다. 교회 수와 교직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은 신학교에서 많은 수의 교직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신학 교수들도 학술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고 있었다(유영준, 이재운 2018).

하지만 장로교회 신학교 학술지와 개혁신학 학술지의 대부분은 KCI에 현재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국외 신학 학술지 연구에서도 유사한 상황으로, 분석 대상이었던 개혁신학 학술지인 웨스트민스터 신학 학술지와 칼빈 신학 학술지도 SSCI나 A&HCI 등 인문사회계열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학술지들이다.

학술지가 KCI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게재 논문이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공식적인 연구성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학술 활동에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술지가 해당 학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더불어 연구재단의 지원도 받지 못해서, 학술지로서의 역할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KCI는 국내 학술연구 성과의 인

정 여부를 좌우하는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이므로 KCI에 등재되지 않은 신학 학술지들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보다 KCI에 등재된 신학 학술지들의 지적구조를 분석하는 연구가 신학 학술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연구의 첫째 목적은 KCI에 등재된 국내 신학 학술지들의 색인어를 분석하여 주요 연구주제를 파악하고, 각 주제에 대한 개별 학술지의 비중을 밝힘으로써 국내 신학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신학 학술지 저자들의 주요 주제어와 저자들이 공유하는 연구주제를 나타내는 공통 주제어를 식별하며, 시기를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주제어를 기반으로 군집을 생성하고 저자들의 주제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KCI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를 포함하여 일부 분과 학술지를 선별적으로 다루었던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서 이 연구는 공식적인 학술성과로 인정받는 KCI의 신학 분야 등재지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신학의 공식적인 학술성과의 지적구조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방법

계량서지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경우에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김현정 2018)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검색을 통해서 선별된 논문을 분석하는 경우(곽철완 2018; 김현정 2017; 김희섭, 강보라

2019; 이재윤 2017; 이재윤 2020; 이지연, 감미아 2018; 정도현, 주황수 2018; 최예진, 정연경 2016; 최형욱, 정은경 2017)와 분석 대상 학술지를 선정한 후 게재 논문 전체를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김혜진, 송민 2017; 이재윤, 최상희 2017; 이혜경, 양기덕, 오동근 2019; 정은경 2020;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제 제한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주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된다. 후자는 학문분야 제한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주로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된다. 주제 제한과 학문분야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강보라, 김희섭 2017; 신유미, 박옥남 2019; 이지원 2019; 이혜영 2017)도 종종 있는데, 이때는 선정한 소수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특정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선별하여 분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학 연구의 공식적인 학술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대상 논문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학문분야 제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기독교 신학 관련 학술지는 23종이다. 이 중에서 선교, 실천신학, 기독교 상담 등 연구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학술지들은 제외하였다. 이와 달리 성경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인 '구약논단(KJOTS)'과 '신약연구(KENTS)', '신약논단(KNTS)', '성경과 신학(BT)'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신학논단(TF)', '한국기독교신학논총(KJCS)', '한국개혁신학(KRT)', '한국조직신학논총(KJST)' 등 연구 범위가 포괄적인 학술지 4종을 더해서 8종의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8종 학술지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 성경과 신학(Bible and Theology; BT)
- 신약연구(Korean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 KENTS)
- 구약논단(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KJOTS)
- 신학논단(Theological Forum; TF)
- 신약논단(Korean New Testament Studies; KNTS)
- 한국기독교신학논총(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KJCS)
- 한국개혁신학(Korea Reformed Theology; KRT)
- 한국조직신학논총(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KJT)

분석대상 학술지 논문의 간행시기는 8종 모두가 연2회 이상 간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최근인 2019년까지로 정하였다. KENTS(신약연구)의 경우 2009년에는 한 호만 간행되었다가 2010년부터 연4회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학술지가 2010년 이후에는 연4회 간행되고 있으나, KRT(한국개혁신학)는 연2회 간행되다가 2011년부터 연4회로 증간되었고, KJT(한국조직신학논총)는 연3회 간행되다가 2018년부터 연4회로 증간되었다. 이와 달리 KJCS(한국기독교신학논총)는 연6회 간행되다가 2014년부터 연4회로 발행횟수가 줄어든 경우이다. 전체 8종 학술지에 10년 간 게재된 논문은 총 2,799편이었다.

전체 10년의 기간에 대해 분석 시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자집단 중복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활동하는 저자집단에 변화가 가장 크게 나

타나는 시점을 경계로 시기를 분할하는 기법이 다(유영준, 이재운 2016). 학술지의 주제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중평균연결 계층적 군집분석 기법(WPGMA)인 McQuitty 방법으로 주제어 군집을 도출하였으며, 군집별로 학술지가 갖는 비중도 함께 나타났다. 더불어 학술지 프로파일링(이재운, 최상희 2011)을 통해서 학술지의 군집도 분석하였다. 저자별 논문수를 나타내는 표준성과지수와 발표논문의 성장추세를 나타내는 성장지수(이재운 외 2011)를 기준으로 주요 저자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저자의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자 프로파일링(김판준, 이재운 2007)을 수행하면서 계층적 군집분석 기법의 일종으로 군집 간 분산을 최소화하는 Ward 방법을 사용해서 주요저자 42명의 군집을 도출하고 군집별 주요 공통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적정 군집수를 결정할 때에는 군집크기의 변동계수가 낮은 지점을 선택해서 가급적 고른 크기의 군집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군집분석은 모두 통계분석 패키지 R의 hclust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학술지 군집, 키워드 군집, 저자 군집은 군집기반 네트워크(이재운 2007)로 시각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기법을 목적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학술지 분석

2.1 게재논문 수 분석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8종 학술지별 게재 논문 수는 <표 2>와 같다. 총 게재 논문 수는 KJCS가 544편으로 가장 많고 TF가 402편, BT가 383편으로 그 다음 순위이다. 연도별 논문 수는 2013년이 34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다. 8종 중 7종 학술지가 2013년보다 2019년 게재 논문 수가 적었으며, 유일하게 KJOTS만 논문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논문의 수가 학술적 성과를 판단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학 학술지의 논문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우려할만한 결과로 보인다.

2.2 학술지 시기 분할

전체 분석 시기를 나눌 수 있는 전환기가 언제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자집단 중복도를 산출해보았다. 이는 연구자 집단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투고한 저자집단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표 1> 분석 목적과 사용된 기법

목적	분석 기법	비고
분석 시기 구분	저자집단 중복도 검사	1년 전후 비교, 2년 전후 비교
주제어 군집화	단어동시출현분석, 계층적 군집분석	McQuitty 방법 적용
학술지 군집화	학술지 프로파일링, 계층적 군집분석	완전연결/평균연결 방법 적용
저자의 입지 분석	표준성과지수, 성장지수	
저자 군집화	저자 프로파일링, 계층적 군집분석	Ward 방법 적용
군집 시각화	군집기반 네트워크	

〈표 2〉 8종 학술지의 연도별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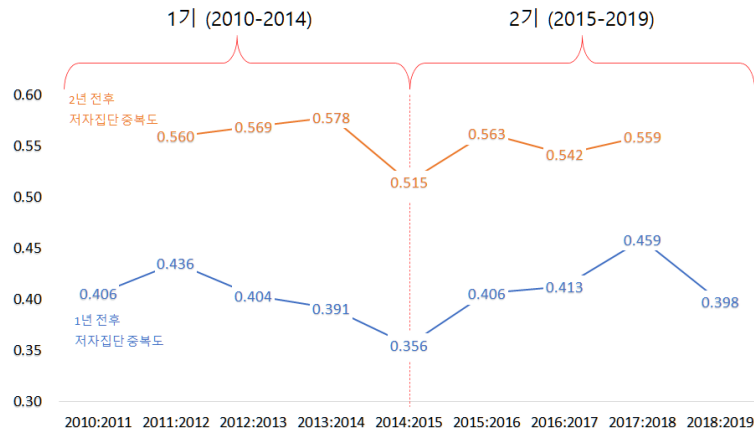
학술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BT	31	33	48	48	41	44	41	42	24	31	383
KENTS	24	31	29	33	25	21	25	20	16	20	244
KJCS	59	56	54	78	48	43	49	55	53	49	544
KJOTS	33	27	28	35	37	31	29	33	33	35	321
KJST	27	38	34	32	27	26	20	20	21	24	269
KNTS	29	34	38	33	34	30	32	26	27	30	313
KRT	24	41	35	38	26	30	28	32	35	34	323
TF	36	37	36	46	46	45	42	42	36	36	402
합계	263	297	302	343	284	270	266	270	245	259	2,799

시기가 있다면 그때를 변화의 기준 시기로 삼는 방법이다(유영준, 이재운 2016).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한 유영준과 이재운(2016)의 연구에서는 저자집단 중복도를 '저자 중복도'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매 연도마다 직전 5년 동안 논문을 발표한 저자집단과 이후 5년 동안 논문을 발표한 저자 집단이 얼마나 중복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45년이라는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5년 전후 저자 중복도를 산출했는데, 여기서는 전체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므로 저자 집단을 비교하는 기간을 1년 전후와 2년 전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비교하는 기간을 n년이라고 하였을 때, y년 이전 저자집단과 y+1년 이후 저자집단의 저자집단 중복도는 다음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 공식을 응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a_{k,i}$ 는 k번째 저자의 i년도 논문수이다.

$$n\text{년 전후 저자집단 중복도}(y, y+1) =$$

$$\frac{\sum_k \left\{ \sum_{i=y-n+1}^y a_{k,i} \times \sum_{j=y+1}^{y+n} a_{k,j} \right\}}{\sqrt{\sum_k \left(\sum_{i=y-n+1}^y a_{k,i} \right)^2 \times \sum_k \left(\sum_{j=y+1}^{y+n} a_{k,j} \right)^2}}$$



〈그림 1〉 전후년도 저자집단 중복도

1년 전후 저자집단 중복도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의 중복도가 0.35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년 전후 저자집단 중복도에서도 2013-2014년과 2015-2016년 사이의 중복도가 0.5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신학 학술지 8종에 투고하는 저자집단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두 기준에서 모두 저자집단 중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를 경계로 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을 1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2기로 나누었다.

2.3 주제어 군집과 학술지 비중 분석

앞서 1기의 논문 수가 2기의 논문 수보다 많았으므로 단순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면, 1기의 주제가 과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할 때에는 단순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도별 출현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다. 키워드마다 연도별 출현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여 상위 92개 키워드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92개를 선정한 이유는 한 번이라도 출현한 키워드의 종수가 8,473개이므로 이의 제곱근인 92.05를 반올림한 92개가 핵심 집단을 이루는 적정 규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2개 키워드에 대해서 McQuitty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크기 변동계수를 기준으로 고르게 키워드가 나누어진 9개와 3개의 군집분할을 채택하였다. 각 군집별 소속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92개 키워드가 <표 3>과 같이 3개의 대군집과 8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었는데, 대군집 1은

개혁신학/조직신학과 바울의 신학, 기독교/종교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소군집 2에서 신약 성경 관련 학술지들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조직신학적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크게 보면 대군집 1은 조직신학을 주된 주제로 볼 수 있다. 대군집 2는 예수 그리스도/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기독교 등의 주제로 나타났으므로 신구약성경을 대군집 2의 주된 주제로 볼 수 있다. 대군집 3에서 소군집 4는 신앙/조직신학을 주된 주제로 볼 수 있으며, 소군집 8은 '신학', '기독교교육', '상담학' 등이 혼재하고 있지만, 신학자인 '폴틸리히'와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신학과 관련이 있는 주제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군집 3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된 주제는 조직신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표 3>에는 소군집의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의 비율을 표시했는데, 주제어와 학술지의 비율을 바탕으로 주제어와 학술지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학 분야에서 학술지가 주제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대군집 1에 속한 소군집 1의 키워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학술지는 KRT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RT는 개혁신학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조직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는 것으로 보였다. 소군집 2에 많은 영향을 미친 학술지는 KENTS와 KNTS로 신약성경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는 학술지들이었다. 소군집 3에서는 KJCS와 BT로 다른 소군집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키워드의 범위가 포괄적

<표 3> McQuitty 방법에 의한 92개 키워드의 계층적 군집화 결과와 학술지별 비중

대군집		소군집		소속 키워드	학술지별 비중
번호	주제	번호	주제		
1	조직신학	1	개혁신학/조직신학	칼빈, 교회, 삼위일체, 개혁신학, 한국교회, 설교, 영성, 선교, 바르트, 성찬, 예배, 예정론, 공동체, 교회론, 정체성, 웨슬리, 성령론	
		2	바울의 신학	바울, 로마서, 구원론, 신약성경, 바울에대한새관점	
		9	기독교/종교	기독교, 종교, 에큐메니즘, 자유, 복음주의	
2	신구약성경	3	예수그리스도/성경	예수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나라, 율법, 해석학, 성경, 누가복음, 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리더십, 하나님의말씀, 성경해석, 여성, 비유	
		5	신약성경	요한복음, 하나님, 사랑, 고린도전서, 부활, 죽음, 고난, 죄, 베드로	
		6	구약성경	종말론, 시편, 이사야, 요한계시록, 메시아, 계시, 성전, 유대교, 심판, 기록, 윤리	
		7	신약성경/기독론	마가복음, 기독론, 마태복음, 제자도, 이스라엘, 회복, 에스겔, 성육신, 치유	
3	조직신학	4	신앙/조직신학	신앙, 칭의, 루터, 구원, 성화, 종교개혁, 아우구스티누스, 정의, 하나님의 형상, 지혜, 평화, 창조, 은혜, 창세기, 언약	
		8	신학	신학,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폴틸리히, 기독교상담, 포스트모더니즘	

이어서 주제어의 특성을 규정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두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의 연구 범위도 다른 소군집과 비교해서 폭넓다고 볼 수 있다.

대군집 2에 속한 소군집 3에서는 KNTS와 BT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여서, 신약성경 관련 주제와 조직신학 관련 주제가 주요한 주제를 구성하였다. 소군집 5에서는 KNTS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군집 6에서는 소군집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양한 학술지가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는 KNTS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약성경 관련 주제어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분리된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라는 통일성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군집 7에서는 KNTS와 KENTS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서, 신약성경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고 있었다. 대군집 2에서는 신약성경과 관련된 논문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약성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KNTS와 KENTS 학술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KNTS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두 학술지는 신약성경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지만, 그 영향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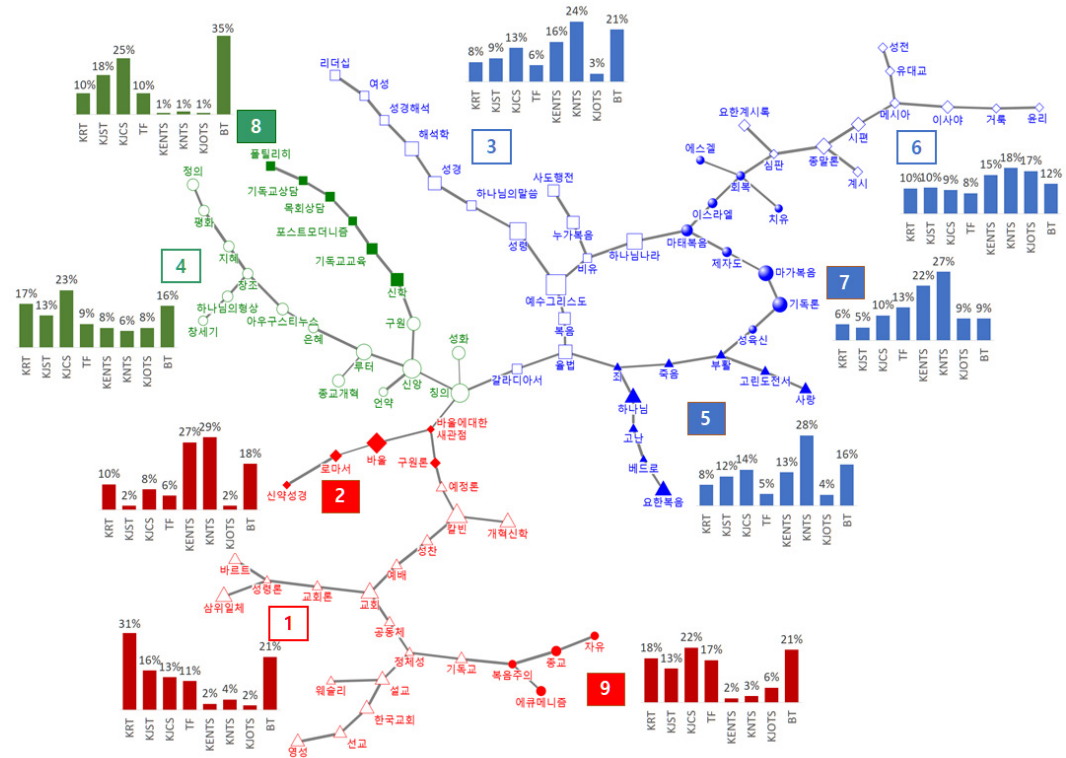
대군집 3의 소군집 4에서는 KJCS와 KRT, BT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군집 4를 대표하는 주제어에 조직신학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게 될

학술지 네트워크인 <그림 4>에서는 KRT와 BT가 동일한 군집에 속했으며, KJCS와 BT가 '바울'과 '칭의'를 주제어로 공유하고 있었다. 소군집 8에서는 BT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JCS의 비율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군집 3의 주제어에 많은 영향을 미친 학술지는 BT와 KJCS로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표 3>과 다른 관점에서 키워드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그림의 중앙에 위치한 '칭의'는 대군집 1과 3을 연결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대군집 2와 3도 연결하는 용어로도 볼 수 있다. '칭의'가 연결성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칭의론은 조직신학의 연구 대상이면서, 성경에 근거한 칭의론을 주장하는 개혁신학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또한 칭의는 신약성경에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신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주제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4 학술지 군집분석

학술지마다 부여된 키워드가 겹치는 정도로 학술지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총 5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525종이 각 학술지에 출현한 정도로 크기가 525 × 8인 학술지 프로파일 행렬을 작성한 후, 8종 학술지의 프로파일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장 유사한 학술지 쌍은 유사도가 0.802인 KENTS와 KNTS 쌍이었고, 그 다음은 0.683인 TF와 KJCS 쌍이었다. 가장 유사하지 않게 나타난 학술지 쌍은 유사도가 0.161에 불과한 KJOTS와 KENTS 쌍이었다. 그 이유는 두 학술지가



〈그림 2〉 McQuitty 방법에 의한 키워드 군집별 8종 학술지의 비중

〈표 4〉 8종 학술지 간 키워드 유사도

학술지	BT	KENTS	KJCS	KJOTS	KJST	KNTS	KRT	TF
BT	1.000	0.453	0.659	0.295	0.544	0.481	0.653	0.548
KENTS	0.453	1.000	0.392	0.161	0.260	0.802	0.266	0.386
KJCS	0.659	0.392	1.000	0.335	0.629	0.405	0.531	0.683
KJOTS	0.295	0.161	0.335	1.000	0.173	0.178	0.202	0.289
KJST	0.544	0.260	0.629	0.173	1.000	0.301	0.610	0.457
KNTS	0.481	0.802	0.405	0.178	0.301	1.000	0.262	0.392
KRT	0.653	0.266	0.531	0.202	0.610	0.262	1.000	0.426
TF	0.548	0.386	0.683	0.289	0.457	0.392	0.426	1.000

주로 연구하는 대상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구약성경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2〉에서 KJOTS와 KENTS가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키워드 군집은 단 하나로서 종말론과 메시아가 포함된 소군집 6이라는 점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대한 국내 연구가 연결되는 지점이 일부나마 드러나 있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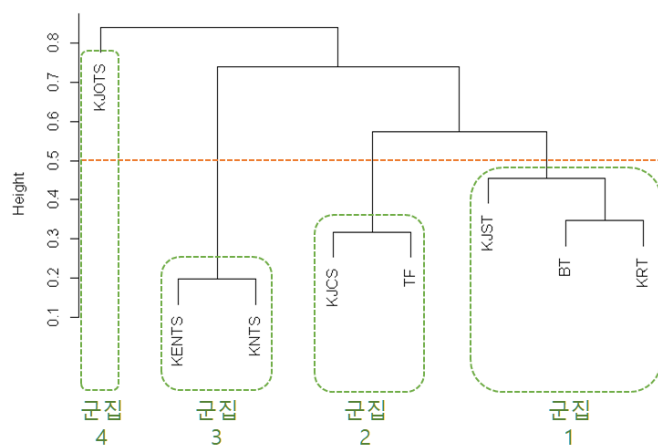
지만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두 학술지의 연구 내용이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은 국내 신학 연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4〉의 8종 학술지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완전연결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4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다. KCI 색인을 근거로 생성된 4개의 군집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신학 학술지의 주요 연구 분야가 신구약 성경과 조직신학/개혁신학을 연구하는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국내 신학 관련 도서관에서 학술지 구독과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할 때, 위 군집의 주제 분야들을 중심으로 구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KCI 색인에 포함되지 않은 학술지들의 주제 분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계층적 군집분석 기법으로 완전연결 방법이 아닌 평균연결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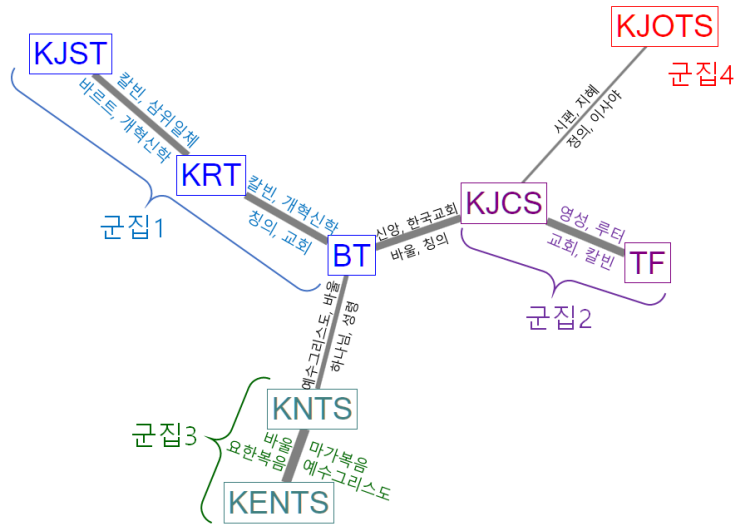
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군집1에는 KJST, BT, KRT의 3종이 포함되었고, 군집2에는 KJCS와 TF의 2종, 군집3에는 KENTS와 KNKS의 2종이 포함되었으며 KJOTS는 홀로 고립된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 결과는 〈표 3〉 학술지 주요어 분석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집1은 조직신학, 성경과 신학, 개혁신학 등 연구 대상이 유사한 학술지들이 동일한 군집에 속했으며, 군집2는 주요어 분석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는 면에서 예측 가능한 군집으로 보인다. 군집3은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두 학술지가 군집을 이루었으며, 구약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가 별도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각 학술지마다 키워드의 출현확률(출현한 문헌 수를 전체 문헌 수로 나눈 값)을 구한 다음, 군집에 속한 학술지에서의 키워드 출현확률을 기하 평균한 값이 높은 키워드를 군집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을 산출한 이유는, 군집 내 소속 학술지 중 어



〈그림 3〉 8종 학술지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에 완전연결 방법을 적용한 결과 덴드로그램



〈그림 4〉 8종 학술지 간 프로파일 유사도로부터 도출한 완전연결 군집기반 네트워크와 학술지 간 주요 공유어

는 한 중에서 유별나게 많이 출현한 키워드보다는 학술지마다 고르게 많이 출현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군집별 주요 키워드는 군집 간에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각 군집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별 키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키워드는 전체 출현확률에 비해서 해당 군집에서의 출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KL-다이버전스 공식(Kullback and Leibler 1951)을 응용하여 측정한다(유영준, 이재운 2016).

〈그림 4〉는 학술지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학술지들의 군집을 군집기반 네트워크로 나타냈으며, 학술지들이 공유하는 주제어도 함께 표시하였다. 군집1 공유어에서 개혁신학과 칼빈과 세 학술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집3에도 ‘칼빈’이 등장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혁신학’은 나타나

지 않으며, ‘영성’과 ‘기독교영성’은 다른 군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공유어이다. 따라서 군집1의 ‘칼빈’과는 다른 관점으로 군집3의 ‘칼빈’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영성’은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영성’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승구 2018). 군집3은 신약성경과 밀접한 용어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군집4가 군집2와 연결된 것은 군집2의 출애굽기가 구약성경과 관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개별 학술지에서는 4개의 군집 중앙에 위치한 BT가 다른 모든 학술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표 3〉에서 주제어의 계층적 군집화와 학술지 비중에서 BT에 발표되는 논문들의 주제 범위가 다른 학술지들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저자 분석

3.1 주요 저자 분석

8종 학술지에 10년간 논문을 10건 이상 발표한 저자는 37명이었고, 10년 중 연속된 5년 동안 8편 이상 발표한 저자는 30명(5년간 연평균 1.5회 이상 발표한 저자)이었다. 이들을 합친 결과 25명이 중복되어 총 42명을 국내 신학 연구의 주요 저자로 선정하였다. 각 저자의 시기별 논문 수는 <표 5>와 같다. 이들은 10년 동안 꾸준히 논문을 발표했거나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이다. 예를 들면, 박윤만은 총 10편을 발표했는데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두 편씩 꾸준히 발표한 저자이고, 박옥주는 총 9편을 발표해서 10편에 불과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8편을 발표해서 2기에 논문 발표가 집중된 저자이며, 김영한은 총 8편을 발표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8편을 발표해서 1기에 논문 발표가 집중된 저자이다.

주요 저자 42명이 2010년~2019년에 발표한 논문의 양(표준성과지수)과 성장추세(성장지수)를 기준으로 각 저자의 입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표준성과지수는 0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이면 양수, 평균 미만이면 음수로 산출된다. 성장지수는 0에서 1사이로 측정되며 0.5 이상이면 성장추세, 0.5 미만이면 감소추세를 의미한다(이재윤 외 2011). 10년 동안 발표한 논문의 양이 가장 많은 이은선은 가로축으로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며, 42명 중 유일하게 10년 동안 매년 논문을 발표하여 성장지수는 중립인 0.5에 가까운 0.485이다. 발표논문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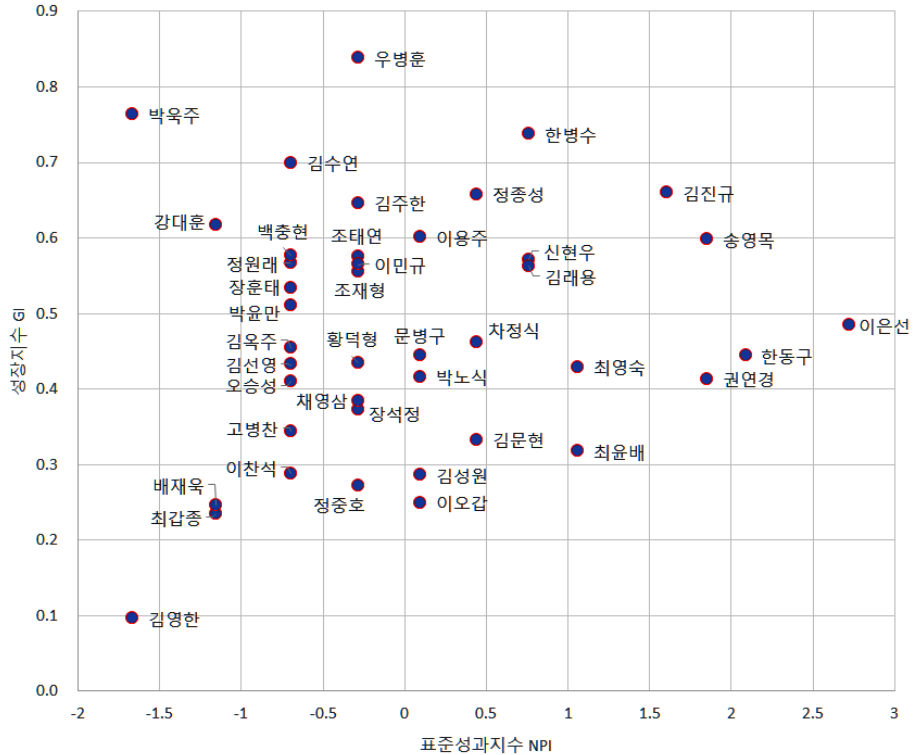
장지수가 0.838로서 가장 높은 우병훈은 42명 중에서 유일하게 발표논문 11편 모두를 2기인 2015년 이후에 발표한 저자이다. 반면에 유일하게 발표논문 8편 모두를 1기인 2014년 이전에 발표한 김영한은 성장지수가 0.097로 가장 낮다.

이은선은 22편의 논문 중에서 13편의 논문을 KRT에 발표하였으며, 개혁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신학자이다. 우병훈이 2015년 이후에 논문을 발표한 이유는 2014년 미국의 칼빈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5년부터 국내의 고신신대원에서 교수로 활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부산일보 2020). 김영한은 송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2011년 2월에 퇴임해서 1기에 모든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이 세 학자가 모두 개혁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발표논문의 양과 성장추세가 모두 10위 안에 드는 저자는 그림의 오른쪽 위에 있다. 김진규는 표준성과지수와 성장지수가 모두 5위이며, 한병수는 표준성과지수 8위, 성장지수 3위로서 김진규보다 약간 왼쪽 위에 위치하였고, 송영목은 표준성과지수 3위, 성장지수 10위로서 김진규보다 약간 오른쪽 아래에 있다. 세 명의 저자 중에서 송영목은 5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군집 4의 학술지를 제외한 모든 군집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진규도 4개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학술지 군집 1, 2, 4에 고르게 학술지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병수는 군집 1에 속한 학술지에만 논문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저자가 두 지수와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주요 저자 42명의 시기별 논문 수와 성장지수(GI)

	저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합계	1기	2기	GI
1	이은선	1	2	3	5	1	3	1	1	4	1	22	12	10	0.485
2	한동구	1	2	3	2	2	3	4	1	1	0	19	10	9	0.444
3	송영목	0	2	2	1	0	3	4	2	1	3	18	5	13	0.599
4	권연경	1	2	4	2	3	2	1	1	2	0	18	12	6	0.414
5	김진규	0	0	2	0	1	4	3	3	2	2	17	3	14	0.660
6	최운배	2	3	3	2	2	1	0	1	1	0	15	12	3	0.319
7	최영숙	3	2	1	2	0	2	1	1	2	1	15	8	7	0.430
8	한병수	0	0	0	0	1	3	3	2	3	2	14	1	13	0.738
9	신현우	0	0	1	2	3	2	2	2	2	0	14	6	8	0.571
10	김래용	1	0	2	1	2	1	2	2	2	1	14	6	8	0.563
11	김문현	2	2	2	1	3	0	3	0	0	0	13	10	3	0.333
12	정종성	0	0	0	3	1	3	0	2	1	3	13	4	9	0.658
13	차정식	2	2	3	0	0	1	0	2	0	3	13	7	6	0.462
14	이오갑	3	4	1	0	2	0	1	1	0	0	12	10	2	0.250
15	김성원	4	1	1	2	1	1	1	1	0	0	12	9	3	0.287
16	박노식	1	1	3	1	1	2	1	1	1	0	12	7	5	0.417
17	이용주	1	1	0	2	1	1	0	1	3	2	12	5	7	0.602
18	문병구	1	3	0	1	1	2	2	1	0	1	12	6	6	0.444
19	우병훈	0	0	0	0	0	1	1	3	3	3	11	0	11	0.838
20	정중호	1	3	2	2	1	2	0	0	0	0	11	9	2	0.273
21	조재형	0	0	1	2	3	1	1	1	1	1	11	6	5	0.556
22	장석정	1	2	3	1	1	0	1	1	0	1	11	8	3	0.374
23	채영삼	1	2	2	1	2	0	1	1	1	0	11	8	3	0.384
24	조태연	0	0	2	2	1	1	1	1	2	1	11	5	6	0.576
25	이민규	1	1	1	0	1	1	1	3	1	1	11	4	7	0.566
26	김주한	0	0	1	2	1	1	1	2	0	3	11	4	7	0.646
27	황덕형	1	1	3	1	0	1	1	2	1	0	11	6	5	0.434
28	장훈태	0	0	1	0	3	3	2	1	0	0	10	4	6	0.533
29	이찬석	1	2	2	2	1	2	0	0	0	0	10	8	2	0.289
30	오승성	0	2	3	2	0	1	0	0	0	2	10	7	3	0.411
31	김옥주	0	1	2	2	1	2	0	1	0	1	10	6	4	0.456
32	고병찬	1	2	2	1	2	0	1	0	1	0	10	8	2	0.344
33	정원래	1	1	0	1	0	2	1	2	1	1	10	3	7	0.567
34	김수연	0	0	0	1	2	1	1	1	2	2	10	3	7	0.700
35	백충현	2	1	1	0	0	0	1	0	2	3	10	4	6	0.578
36	박윤만	0	2	1	1	1	1	1	1	1	1	10	5	5	0.511
37	김선영	1	1	1	2	1	1	1	1	1	0	10	6	4	0.433
38	최갑중	3	2	1	2	0	0	0	0	0	1	9	8	1	0.235
39	배재욱	1	2	4	0	1	0	1	0	0	0	9	8	1	0.247
40	강대훈	0	0	0	1	1	3	2	1	0	1	9	2	7	0.617
41	박옥주	0	0	0	0	1	0	1	3	3	0	8	1	7	0.764
42	김영한	3	4	0	1	0	0	0	0	0	0	8	8	0	0.097



〈그림 5〉 주요 저자 42명이 2010년~2019년에 발표한 논문의 양(표준성과지수)과 성장추세(성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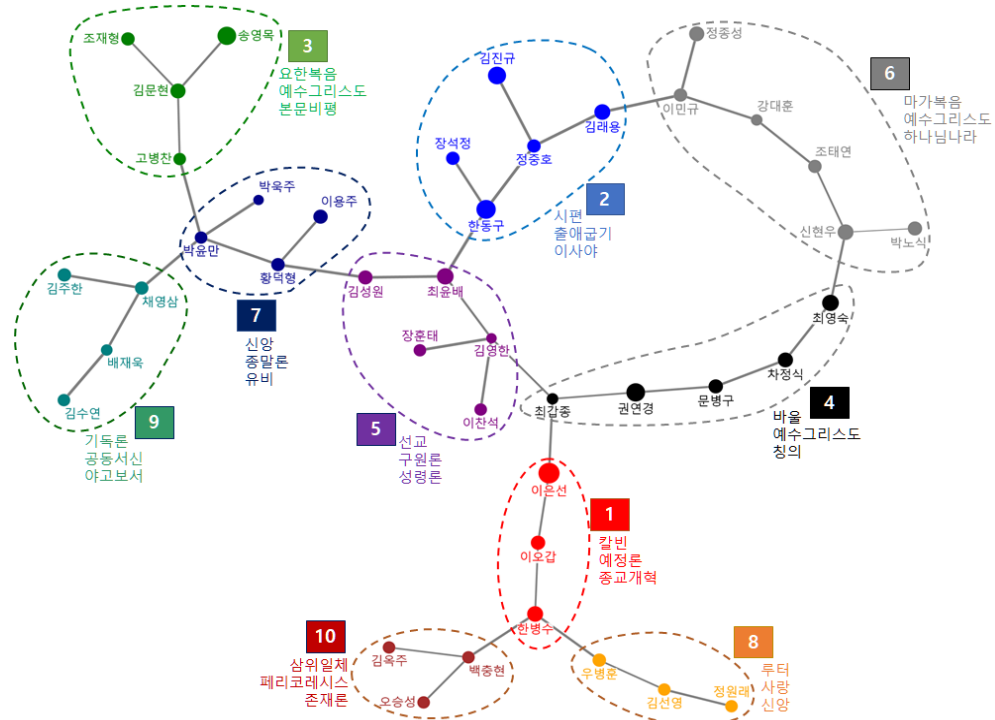
3.2 주요 저자의 연구주제 분석

42명 저자들 사이의 주제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저자가 발표한 논문에 부여된 키워드로 저자 프로파일(김관준, 이재운 2007)을 구축하고 저자 프로파일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한 다음, 이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계층적 군집 분석 기법의 일종인 Ward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그림 6〉과 같은 덴드로그램이 도출되었다.

저자군집의 적정 수는 군집 크기의 변동계수를 산출해서 〈그림 7〉과 같이 변동계수가 가장 작은 경우인 10개 군집 분할을 채택하였다. 군집크기 변동계수가 작다는 것은 군집의 크기가

고르게 분할되었다는 뜻으로서, 변동계수가 낮은 지점을 선택하면 일부 군집에 저자가 밀집되어 주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42명의 저자가 Ward 방법으로 10개 군집으로 분할된 정보를 기반으로 군집기반 네트워크(이재운 2007)를 〈그림 8〉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 네트워크에서 10개 군집은 다시 크게 2개 군집으로 묶이는데, 아래쪽의 군집1, 군집8, 군집10이 대군집A를 이루고 나머지 위쪽의 7개 군집이 대군집B를 이룬다. 10개 소군집마다 1기와 2기의 발표 논문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저자와 군집 소속 저자들의 논문에 공통적으로 많이 부여된 키워드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그림 8〉 주요저자 42명의 군집기반 네트워크와 군집별 주요 공통 키워드

〈표 6〉 각 군집의 시기별 최다 발표 저자와 주요 공통 키워드

2개 군집 분할	10개 군집 분할	소속 저자	시기별 최다 발표 저자 (괄호 안은 시기별 논문 수)		군집저자 논문 수			주요 공통 키워드
			1기	2기	합계	1기	2기	
A	1	이은선, 한병수, 이오갑	이은선(12)	한병수(13)	48	23	25	칼빈, 예정론, 종교개혁
	8	우병훈, 정원래, 김선영	김선영(6)	우병훈(11)	31	9	22	루터, 사랑, 신앙
	10	오승성, 김옥주, 백충현	오승성(7)	백충현(6)	30	17	13	삼위일체, 페리코레스, 존재론
B	2	한동구, 김진규, 김래용, 정중호, 장석정	한동구(10)	김진규(14)	72	36	36	시편, 출애굽기, 이사야
	5	최윤배, 김성원, 장훈태, 이찬석, 김영한	최윤배(12)	장훈태(6)	55	41	14	선교, 구원론, 성령론
	7	이용주, 황덕형, 박윤만, 박옥주	황덕형(6)	이용주(7), 박옥주(7)	41	17	24	신앙, 종말론, 유비
	9	채영삼, 김주한, 김수연, 배재욱	채영삼(8), 배재욱(8)	김주한(7), 김수연(7)	41	23	18	기독교, 공동서신, 야고보서
	4	권연경, 최영숙, 차정식, 문병구, 최갑종	권연경(12)	최영숙(7)	67	41	26	바울, 예수그리스도, 칭의
	6	신현우, 정중성, 박노식, 조태연, 이민규, 강대훈	박노식(7)	정중성(9)	70	28	42	마가복음, 예수그리스도, 하나님나라
	3	송영목, 김문현, 조재형, 고병찬	김문현(10)	송영목(13)	52	29	23	요한복음, 예수그리스도, 본문비평

대상으로 나타난 점이다.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 연구를 바탕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신학 도서관에서도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신학의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연구 분야들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군집A의 소군집 1은 '칼빈'과 칼빈의 대표적인 교리인 '예정론'과 '종교개혁'을 완성한 신학자인 칼빈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개혁신학이 주요한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소군집 8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와 '사랑', '신앙'으로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어로 구성되었다. 소군집 10은 '삼위일체'와 '페리코레시스'는 삼위일체의 고대 그리스어 표현이며, '존재론'도 신존재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어들은 조직신학의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대군집B는 신약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저자들의 군집이 가장 눈에 띈다. 7개의 소

군집 중에 4개가 신약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대군집 B를 대표하는 군집이며, 구약성경과 연관된 주제를 연구하는 소군집 2까지 포함하면, 신약성경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군집 B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군집 5의 '구원론'과 '성령론'은 조직신학자들의 연구 영역이며, 소군집 7의 '종말론'도 조직신학의 연구 주제이다. '신앙'과 '유비'는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들로 볼 수 있다.

시기별로 논문 수의 차이가 큰 군집은 군집8, 군집5, 군집4, 군집6이다. 이 중에서 군집8과 군집6은 2기에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군집5와 군집4는 2기에 논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한 군집들에는 신진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감소한 군집들에는 저자들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하였다.

1기와 2기의 출현비율 기준 상위 10위 이내 키워드를 비교해보면 <표 7>과 같이 소소한 순위의 변동만 있을 뿐, 10개 중 9개가 일치한다. 따라서 국내 신학 연구의 주제는 지난 10년간

<표 7> 1기 상위 키워드와 2기 상위 키워드 비교

1기 상위 키워드		2기 상위 키워드	
키워드	1기 비율평균	키워드	2기 비율평균
예수그리스도	4.85%	칼빈	3.58%
바울	4.39%	바울	3.48%
칼빈	4.26%	예수그리스도	3.14%
신앙	3.54%	신앙	2.72%
하나님	3.39%	칭의	2.60%
교회	2.97%	교회	2.48%
칭의	2.82%	요한복음	2.36%
요한복음	2.61%	하나님	2.35%
종말론	2.40%	삼위일체	2.19%
기독교론	2.36%	종말론	2.11%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기 상위 키워드 10종의 출현비율 합계가 33.6%인 것에 비하면 2기 상위 키워드 10종의 출현비율 합계는 27.0%에 그쳐서 상위 키워드의 출현 비중이 2기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서는 2기보다 상위 키워드 관련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2기에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완화되어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다소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KCI에 등재된 신학 학술지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신학 학술지의 공식 학술성과에 반영된 주요 연구 주제와 저자들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KCI에 등재되지 않고 신학의 일부 영역에 국한된 학술지들을 분석해왔던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방법론 면에서는 일부 선행 연구와 유사하지만 키워드 군집을 도출한 후 각 군집에서 개별 학술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주제어 군집과 학술지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었고, 저자와 저자 사이의 관계 분석에서도 공유 키워드를 단서로 사용하는 등 키워드, 학술지, 저자에 대한 분석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하였다.

저자 분석에서는 저자 중복도를 1년 단위와 2년 단위로 계산한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 분석 시기를 둘로 나누었고, 논문의 양을 나타내는 표준성과지수와 성장추세를 표시하는 성장지수

를 활용해서 저자들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Ward 방법을 사용해서 저자들의 군집을 도출하였고 두 저자 간 공통 키워드와 군집 내 저자들의 공통 키워드를 근거로 하여 저자들의 연구 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학술지의 주요 주제어 분석과 저자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신학 관련 주제는 조직신학과 신약성경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분석에서는 조직신학과 신약성경 관련 연구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술지의 특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저자 분석에서도 저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조직신학과 신약성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KCI 등재지를 대상으로 국내 신학 연구의 공식적인 학술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2013년 이후로 8종 중 7종 학술지의 게재 논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적인 면에서 국내 신학 연구가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려되는 점이다. 또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의 관점과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유일한 구원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구약성경 중심의 학술지와 신약성경 중심의 학술지가 공유하는 키워드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 신학 연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파악된 국내 신학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비롯한 후속세대 신학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서비스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보라, 김희섭. 2017. 국내 디지털 도서관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3): 49-66.
- 곽철완. 2018. 빅데이터 연구 논문의 주제 분야 연관관계 분석: 동시 인용 관계를 적용하여. 『정보관리학회지』, 35(1): 13-32.
- 김관준, 이재윤. 2007. 연구영역분석을 위한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4): 285-303.
- 김현정. 2017. 동시출현단어분석을 통한 데이터과학 분야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4): 101-126.
- 김현정. 2018. 학위논문 분석을 통한 미국 도서관학 및 정보과학 최근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3): 11-39.
- 김혜진, 송민. 2017. 팩터그래프 모델을 이용한 연구전선 구축: 생의학 분야 문헌을 기반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1): 177-195.
- 김희섭, 강보라. 2019. 국내외 허위정보 연구동향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291-315.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online]. [cited 2020.5.20].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1&pDataCD=0406000000&pType=03>.
- 부산일보. 2020.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 한국개혁신학학술상수상. [online]. [cited 2020.5.2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0816384447913>>.
- 신유미, 박옥남. 2019. 장서개발관리 분야 최근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2): 105-131.
- 유영준, 이재윤. 2016. 칼빈 신학교 학술지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125-145.
- 유영준, 이재윤. 2018.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에 관한 계량서지학적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41-63.
- 이승구. 2018. 영성훈련 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힘써라. [online]. [cited 2020.5.17].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6>>.
- 이재윤, 김관준, 강대신, 김희정, 유소영, 이우형. 2011. 계량서지적 기법을 활용한 LED 핵심 주제영역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연구』, 42(3): 1-26.
- 이재윤, 최상희. 2011. 계량정보학의 지적구조 분석 연구: 2001-2010년 연구영역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2): 11-36.

- 이재운, 최상희. 2017. 저널 결합 분석을 이용한 한국 문헌정보학 저널의 입지 변화에 대한 계량서지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2): 81-95.
- 이재운. 2007. 국내 광역 과학 지도 생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3): 363-383.
- 이재운. 2017. 자아 중심 주제 인용분석을 활용한 딥러닝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4): 7-32.
- 이지연, 감미아. 2018. 이용자연구와 실용연구 분야의 학제적 융합 가능성 도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1): 129-155.
- 이지원. 2019. 목록 분야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4): 279-300.
- 이혜경, 양기덕, 오동근. 2019. 국내외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 게재논문 패턴 분석: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와 사회과학인용색인(SSCI)를 기반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493-510.
- 이혜영. 2017. 국내에서의 공공도서관 연구동향: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7-43.
- 정도현, 주황수. 2018. 토픽 모델링 기반 내용 분석을 통한 학제 간 융합기술 도출 방법. 『정보관리학회지』, 35(3): 77-100.
- 정은경. 2020. Web of Science 데이터학술지 게재 데이터논문의 지적구조 규명. 『정보관리학회지』, 37(1): 153-177.
- 최예진, 정연경. 2016. 동시출현단어 분석에 기반한 메타데이터 분야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3): 63-83.
- 최형욱, 정은경. 2017. 사회학 분야의 연구데이터 특성과 지적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3): 109-124.
-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연구 동향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 35(2): 89-114.
- Kullback, S. and R. A. Leibler. 1951. "On Information and Sufficiency."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22(1): 79-86.
- Yoo, Y. J., J. Y. Lee, and S. H. Choi. 2013. "Intellectual Structure of Korean Theology 2000-2008: Presbyterian Theological Journal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9(3): 307-31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usandaily. 2020. Professor Woo Byung Hoon of the Kosin Theological Seminary has Received the Academic Award of Korea Reformed Theology Society. [online]. [cited 2020.5.2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0816384447913>>.

- Choi, Hyung Wook and EunKyung Chung. 2017. "An Investigation on Characteristic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Sociology by Analyzing Cited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3): 109-124.
- Choi, Hyung Wook, Ye-Jin Choi, and So-Yeon Nam. 2018. "Time Series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and Research Trend Chang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3 to 201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2): 89-114.
- Choi, Ye-Jin and Yeon-Kyoung Chung. 2016.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Meatdata Research by using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63-83.
- Chung, EunKyung. 2020. "An Investigation of Intellectual Structure on Data Papers Published in Data Journals in Web of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1): 153-177.
- Jeong, Do-Heon and Whang-Soo Joo. 2018. "Discovering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Technologies Using Content Analysis Technique Based on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77-100.
- Kang, Bora and Heesop Kim. 2017. "An Analysis of the Digital Library Research Trend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3): 49-66.
- Kim, Hea-Jin and Min Song. 2017. "Construction of Research Fronts using Factor Graph Model in the Biomedical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177-195.
- Kim, Heesop and Bora Kang. 2019.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Dis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Abroad."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291-315.
- Kim, Hyunjung. 2017.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Data Science Using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4): 101-126.
- Kim, Hyunjung. 2018.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Science and Information Science Through Analyzing Subject Headings of Doctoral Dissertations Recently Published in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11-39.
- Kim, Panjun and Jae Yun Lee. 2007. "Descriptor Profiling for Research Domai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4): 285-303.
- Kwak, Chul-Wan. 2018. "Subject Association Analysis of Big Data Studies: Using Co-citation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1): 13-32.
- Lee, HyeKyung, Kiduk Yang, and Dong-Geun Oh.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Journal

- Publication Patter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Based on KCI and SSCI.”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493-510.
- Lee, Jae Yun and Sanghee Choi. 2011. “Intellectual Structure and Infrastructure of Informetrics: Domain Analysi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2): 11-36.
- Lee, Jae Yun and Sanghee Choi. 2017.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Changes of Korean LIS Journals’ States with Journal 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81-95.
- Lee, Jae Yun, Pan Jun Kim, Dae-Shin Kang, Heejung Kim, So-Young Yu, and Woo-Hyoung Lee.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n LED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3): 1-26.
- Lee, Jae Yun. 2007. “Making a Science Map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3): 363-383.
- Lee, Jae Yun. 2017. “Deep Learning Research Trends Analysis with Ego Centered Topic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4): 7-32.
- Lee, Jee Yeon and Miah Kam. 2018. “Exploration on Possibility of the Disciplinary Convergence of the User Studies and the Research in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1): 129-155.
- Lee, Ji-Won. 2019. “A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Cataloging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4): 279-300.
- Lee, Seung-Goo. 2018. “Do Not Practice Spiritual Training, Try to Obey to the Holy Spirit.” [online]. [cited 2020.5.17].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6>〉.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Current Status of Religion in 2018.” [online]. [cited 2020.5.20].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1&pDataCD=0406000000&pType=03〉.
- Rhee, Hey Young. 2017. “Research Trends on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7-43.
- Shin, You Mi and Ok Nam Park. 201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2): 105-131.

Yoo, Yeong Jun and Jae Yun Lee. 2016. "A Bibliometric Study on the Calvin Theological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4): 125-145.

Yoo, Yeong Jun and Jae Yun Lee. 2018. "A Comparative Study using Bibliometric Analysis Method on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41-63.